

반도체 등 전자업종 22%의 높은 증가율로 제조업 수출 주도 2010년 하반기 경제 및 산업 전망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상반기보다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나 연간 5%대 후반의 성장이 전망된다. 하반기 수출은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유로권 금융불안 등으로 인해 약 23%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내수가 둔화되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등 IT산업군 주도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하반기 16%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편집자 주)

1. 거시경제 전망

▶ 현재의 경기 판단 :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빠른 회복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분기 GDP는 전기비 2.1%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소비와 재고를 제외한 민간내수의 성장기여(0.8%p)는 전분기(0.7%p)와 비슷하여 작년 말 이후의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추이를 보이겠다. 심리지표 등도 대체로 호조이나 최근 일부 선행지표가 둔화 추이를 보이면서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세계경제 : 불안정한 회복세 전망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기조이나,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불안정한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 회복세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유가 및 환율 : 유가 제한적 상승,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예상

국제유가는 올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등에 기인하여 5월 중순 이후 급락하였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및 지정학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연초의 하락기조를 되찾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 : 상반기보다 회복세 다소 둔화되나 연간 5%대 후반 성장

국내 경기부양책의 기간별 구조, 유럽 재정위기 및 주요국 출구전략 여파,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 GDP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연간 GDP 성장률은 5.8%에 달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 국내적으로는 주택경기 부진 및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계된 가계부채 부담 등

이 주요 하방 위험요인이며,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재고 반등은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민간소비** : 소득, 고용 회복에 힘입어 4%대 증가
 민간소비는 작년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경기 민감도가 높은 내구재 소비증가가 회복세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 소비회복, 수출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 전망

설비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국내 경기 회복, 수출 신장 등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소멸,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 힘입어 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입** : 하반기 둔화되나 연간 수출 20%대 증가 전망

상반기 중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3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하반기에는 각국의 출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전기대비)	-3.2 (1.3)	3.5 (1.7)	0.2	7.3 (1.5)	4.6 (0.9)	5.8
민간 소비	-2.7 (1.8)	3.2 (1.1)	0.2	5.2 (1.0)	3.9 (0.9)	4.5
건설 투자	4.1 (3.8)	4.7 (-0.4)	4.4	1.8 (1.1)	1.7 (-0.4)	1.7
설비 투자	-20.1 (-0.8)	2.6 (8.1)	-9.1	25.3 (1.9)	8.8 (1.3)	16.2
통관기준 수출 (억달러) (%)	1,648 (-23.0)	1,988 (-4.5)	3,635 (-13.9)	2,188 (32.8)	2,298 (15.6)	4,486 (23.4)
통관기준 수입 (억달러) (%)	1,454 (-34.2)	1,777 (-17.1)	3,231 (-25.8)	2,039 (40.3)	2,210 (24.4)	4,429 (31.5)
무역수지	194	210	404	149	88	237
경상수지	217	210	427	86	77	163
소비자물가	3.4	2.2	2.8	2.7	3.1	2.9

주 : 1) 수출입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분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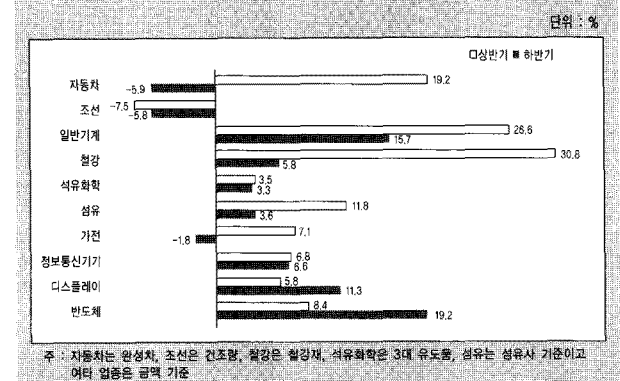
구전략 시행, 유로권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하여 10% 대로 둔화, 연간 약 23%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 수입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등으로 20% 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연간으로는 30%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보다 크게 줄어든 237억 달러가 전망된다.

II. 산업별 전망

▶ **내수** : 하반기 둔화되나 IT산업군 주도로 연간 강한 회복세

고용불안, 가계소득 부진, 건설경기 위축, 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내수는 상반기보다 둔화되나, 금년 전세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의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IT산업군은 3DTV방송 개시, 스마트폰과 넷북 등 신규 수요 확대, 통신장비 수요 증가 등이 호조 요인이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가 노후설비교체와 신규설비 투자 확대에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자동차는 전년 동기 기저효과, 조선은 시황회복 미흡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의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회복, 전방산업 호조,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3~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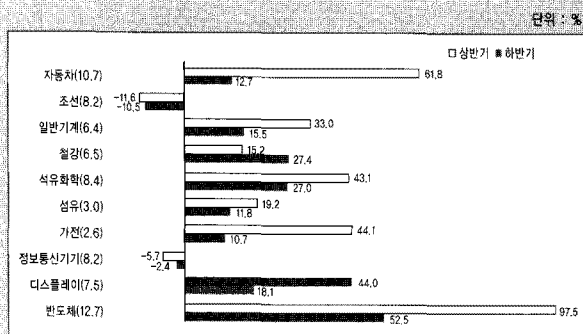
〈그림 1〉 2010년 하반기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 10대 주력산업 수출 : 하반기 16% 증가, 연간 규모는 2008년 수준 상회

수출은 원화 절상 기조가 제약 요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하반기 16%, 연간 22%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하반기에 증가세를 유지하던 IT산업군은 2010년 하반기에도 22%, 연간 29%의 높은 증가율로 제조업 수출을 주도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은 기저효과와 아울러 수출 단가 상승과 재고 조정 완료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24%, 연간 26%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부진으로 하반기 5%, 연간 12%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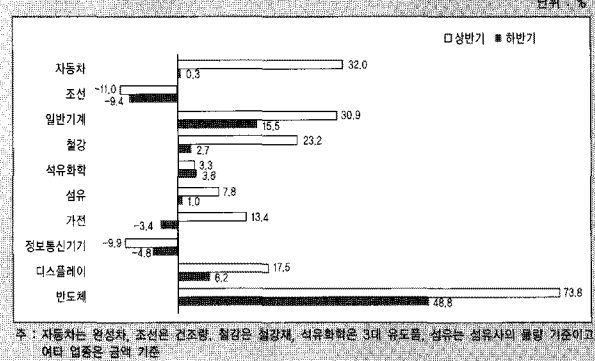
(그림 2) 2010년 하반기 업종별 수출증가율 전망



▶ 생산 : 상반기보다 증가세 둔화되나 금년 전체로는 높은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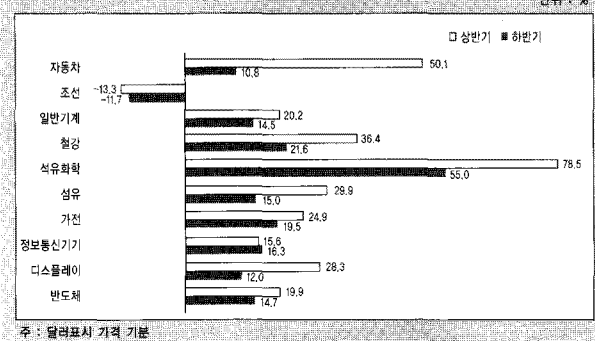
내수 회복세 미약, 저가제품의 중국산 대체, 해외생산 확대로 대부분 업종에서 하반기 생산의 둔화가 예상되나, 금년 전체로는 높은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일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수요 증가와 성수기에 진입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호조, 반면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전과 정보통신기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군에서 수출 및 내수 호조가 예상되는 일반기계와 수출 증가 및 기저효과와 자동차는 생산 호조, 조선은 수주선박 취소와 인도 연기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림 3) 2010년 하반기 업종별 생산증가율 전망



소재산업군은 설비 가동률 향상과 설비능력 확대 등으로 하반기 1~3%의 완만한 증가세, 연간 3~10%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 4) 2010년 하반기 업종별 수입증가율 전망



▶ 정책적 시사점

중국 및 신흥시장 중심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고 경쟁력 확보 위한 미래 유망 신산업에 선제적 투자 추진이 필요하며 환경 친화 소비 분위기 조성 등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

(표 2) 2010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투자
자동차	☔	☁	☀☀	☀☀	☀☀
조선	☔	☔	☔☔	☔☔	☁
일반기계	☀☀	☀☀	☀☀	☀☀	☀☀
철강	☀	☁	☀☀	☀☀	☔☔
석유화학	☁	☁	☀☀	☀☀	☀
석유	☁	☁	☀☀	☀☀	☁
가전	☔	☔	☀☀	☀☀	☁
정보통신기기	☀	☔	☔	☀☀	☀☀
디스플레이	☀☀	☀	☀☀	☀☀	☀☀
반도체	☀☀	☀☀	☀☀	☀☀	☀☀

주: 1)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10%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